

‘시’론

# 국어 영역 ‘시’론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수능 국어 전문가 배인호 선생님 소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 복수전공  
 수능 모의고사 상위 0.01~0.3% (수험생 시절), 지구과학경시대회 / 지리올림피아드 입상  
 2009년 공신 공부법 강의 1위 (질문게시판 점유율 70%)  
 2010년 KBS 공신드라마 멘토  
 2010년 kt에듀 1위 (최연소 최단기 수강생 5만명, 매출 5억 달성)  
 2011년 비타에듀 국어 1위 (비타에듀 최연소 최단기 수강생 1만, 매출 1억 돌파)  
 2017년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여민동락’ 선정 (inoedu.co.kr 온라인 이노에듀)  
 성공강사 강연회 (훈장마을,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공부법 강연회 (용인시, 울산 북구, 안산시, 전라남도 교육청, 영신, 백석, 경일고)

언론이 본 배인호 선생님

-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국민일보, 연합뉴스, 헤럴드 등
- 서울대 발전 기금 기부 스토리 인터뷰
- KBS 드라마 ‘공부의 신’ 멘토
- SBS 이성미의 라디오 쇼 출연
- SBS 김소원의 라디오 전망대 출연
- Mnet 김수로의 명문대 특별반 엠블랙 멘토
- SBS 스타킹 공부법 강사 섭외 요청
- 삼성 스마트 러닝 허브 공부법 강사 섭외 요청
- KBS 아침 마당 섭외 요청

010-8388-5420 / soohum@hanmail.net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국어교육을 복수전공했고, 반 34등에서 2년 만에 전국 70등이 된 수능국어 전문가 배인호 선생님입니다.

2년간 131프로젝트 신청해주신 학생분들이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131 프로젝트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온라인의 한계를 넘기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프로젝트를 지속하지 못한 점이 아쉬워,

작년부터 오프라인 단과/과외, 그리고 온라인 유료멘토링 학생들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배인호의 수능국어, **실전적 기출분석**은 평가원 출제교수님들이 의도하고 원하는 문제접근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출제교수님들의 의도대로 읽고, 제대로 된 문제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바로 얼마 전 까지 교수님들께 직접 들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제 수능 강의 16년을 녹여낸 만큼 누구보다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집중해 읽기 위해 본 문서는 출력을 꼭 해서 차근 차근 정독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소름끼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비문학은 머리(사실적 이해)로, 문학은 머리와 가슴(감상적 이해)으로 읽어라.

엄밀하게는 화법, 작문, 문법, 독서를 비문학이라고 분류하고, 머리로 읽으라는 것은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를 하라는 의미이며, 가슴으로 읽으라는 것은 **감상적 이해**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독해는 **상황식 독서와 하향식 독서**로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많은 강사들이 쓰는 이러한 **국어교육 전공적, 이론적 설명**으로 수업을 도입하는 것은 인강 최초 계가 2010년 진행했었고, 그래서 최단기간 최연소 수강생 숫자와 매출 기록을 세우는 등 많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국어교육 전공적, 이론적 설명**은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대한 **국어교육 전공적, 이론적 설명** 보다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하려합니다.

### 배인호의 수능국어, 실전적 기술분석 '시'

시의 주제파악은 사실적 독해 => 감상적 독해  
즉, 있는 그대로 읽고, 정서를 파악한다.  
즉, 너라면 (객관적으로) 이 시를 왜 썼을지 파악한다.

### 시의 주제는 정서다.

문학을 4장으로 나누면 서정, 서사, 극, 교술 4장르 분류를 합니다. 서정, 즉 정서 전달이 목적인 문학이 바로 '시' 입니다. 그렇다면 시를 읽는 것은 철저하게 '화자의 정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서를 찾고 시를 감상하기 위해** 시를 읽고 있을까요? 아니면 문제 풀이에 급급해 **정보를 찾기 위해** 시를 읽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 풀이에 급급해  
정서가 아닌 정보 찾기 읽기를 합니다.

아래에 밑줄 친 내용들을 시에서 하나 하나 확인하느라 시선이동은 수도 없이 많아지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가)~(다) 작품까지 적용하기 위해서는 작품마다 5번씩 최대 15번의 시선이동이 생겨나구요. **과연 출제교수님들은 이렇게 정보를 찾는, 눈알굴리기 운동을 잘 하는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주시려고 했을까요?**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가)시의 전반에서 대구표현은 나타나지만, 회고적 정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구는 구의 대응을 말하며, 비슷한 내용과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회고적 정서는 회상을 하며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②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나)시에서 물과 불을 대립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립적 이미지는 시어의 의미가 대립되는 것을 말하며, 계절의 변화는 특정 계절을 상징하는 시어와 다른 특정 계절을 상징하는 시어가 나열되어 표현된다.

③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가)시의 산이여!, (나)시의 우리, 등으로 청자는 명시되어 있고, (가)시에서는 기다림으로 바람 표출을, (나)시에서는 만나자 등의 표현으로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청자는 명시될 수도,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작품 다 청자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바람은 이루고자 하는 소망, 성취하고자 하는 지위, 청유, 명령등의 표현으로 명시화 된다.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모두 비유적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가)는 과거의 체험이 없다.

비유는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직유, 은유, 환유, 제유, 대유, 의인, 활유법 등이 있다.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 특정 어구가 점층적으로 나열 된 것은 (가)이다.

특정 어구는 '산'과 같이 비슷하거나, 같은 어구를 말하며, 반복되면 점층을 말한다.

긴박감은 갈등의 상태가 고조될 때 긴박감이라 말한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좋은 해설이다! 라고 평가하는 해설은 위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해설은 절대로 좋은 해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제교수님들은,

**1. 정보 찾기를 잘하는, 눈알굴리기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2. 국어영역 문학의 출제를 통해, 학교에서 문학교과 학습으로 학생들이 길러야 하는 감상적 사고/독해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2017학년도 수능 풀어봅시다.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詩(시)와는 反逆(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  
 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山頂(산정)에 서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하여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남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늦은 거미같이 존재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A]-[방 두 칸과 마루 한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  
 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썩  
 스러울 수가 있을까]

詩(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裸體(나체)를 더듬어보고 살펴볼 수 없는 詩人(시  
 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  
 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죽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反逆(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나) 작품 생략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27.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 보  
 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  
 됨'을 자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  
 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  
 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  
 림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  
 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  
 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  
 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  
 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  
 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  
 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  
 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겠군.
- ④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  
 하는 것이겠군.
-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  
 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이겠군.

주제인 **정서**와,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집중해 읽어라!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詩(시)와는 反逆(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山頂(산정)에 서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하여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남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잠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늦은 거미같이 존재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A]-[방 두 칸과 마루 한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  
고  
의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쪽스러울 수  
가 있을까]

詩(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裸體(나체)를 더듬어보고 살펴볼 수 없는 詩人(시인)처럼 비  
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  
제는 모두 사라졌나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죽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反逆(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나) 작품 생략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우리가 언어활동, 즉, 의사소통 행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  
로,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제'가 의사소통의 내용이자 목적  
이니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 개념어, 개념, 서술방식  
등에 현혹되어 주제를 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정서가 촉발되는 1연에 집중합니다. 특징  
적인 것은 1연 부터 주제가 나옵니다.** 나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소재 : 나, 서술 : 처지**

**주제 - 나의 처지 : 시와 반역된 생활.**

이것을 가슴으로 읽읍시다. 왜 이런 말을 시인은 썼을까요?

**시는 바람/이상 인데, 현재 생활은 그것에 반역/마음에 들지 않기 때  
문**이겠죠. 공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상적 독해 역량입니다.

주옥 흩어보면 알겠지만 나머지 연도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특히  
정서가 집약되는 마지막 연을 살펴봅시다.** 여전히 시를 반역했고, 꿈  
도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시는 바람/이상, 현재 생활은 그것에  
반역/마음에 들지 않음** 이 여전히 일관되게 주제가 되었습니다.

27.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 보면서 자기  
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  
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  
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  
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  
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 정답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발체독**을 하며 근거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오히려 **정확도를 감소**시키기도 할 겁니다.

집중합시다. 아까 특징이 뭐였죠? 네 시상전개방식의 특징은 **1연부  
터 주제가 언급** 된 점입니다. **처음부터 나의 처지가 마음에 들지 않  
음**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  
하고 있다.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를 표현하는 표현법이나 특징에 집중하니 바  
로 정답이 고민없이 골라집니다.

이어지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8.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④ 화자가 ‘베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하는 것이겠군.
-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이겠군.

아가는 정서가 촉발되는 1연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서가 집약되는** 마지막 연입니다. 여전히 시를 반역했고, 꿈도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시는 바람/이상, 현재 생활은 그것에 반역/마음에 들지 않음** 이 여전히 **일관되게 주제**가 되었습니다.

-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답이 바로 나옵니다. 갈등이 해소되었나요? 아니면 갈등은 여전히가요? 네. **갈등은 여전히**합니다. 그것이 주제이고,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성 있게 표현된, 시적 화자의 정서였습니다.

정리합니다.

수능 출제 교수님들은 일반적으로 국어교육학을 전공하시고, 교과교육의 정상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또한 올바른 교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바람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요. 결국 이런 관심과 바람이 문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시를 읽을 때, 내용, 표현, 형식을 유기적으로, 맥락을 바탕으로 읽게 하는 능력,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길어야 7분 안에 이 정도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까요?

네 이렇게 주제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도록 출제합니다.

커리큘럼 상 2018학년도 수능은 2019학년도 대비 실전 연습용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시문제로는 다루지 않고, 커리큘럼이 끝날 때 쯤 실전 연습 풀이 시점을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모든 기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문제를 보며 연습해, 더 이상 시에서 틀리거나, 혼란을 겪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참고로... 소름이 돋을 겁니다.

앞으로 풀어볼 문제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어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 주제

아래의 문제를 지문 없이 풀어봅니다.  
특히 집중합니다.

# 주제

머릿 속에 오로지 '주제'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풀어봅니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31번>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③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제가 과외나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은 생각이 많을수록 오답으로 갑니다. 간단히 생각하세요. **주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어디에 밑줄이 가야하나요?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31번〉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③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섹체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다른 선지들도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잘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출제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데, '시'의 대부분의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출제할 부분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제, 주제의식, 중심소재, 중심대상** 과 같이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써서 만든 선지가 정답 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의 문제를 지문 없이 풀어봅니다.

머릿 속에 오로지 '주제'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풀어봅니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31번>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A형 37번>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에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2018학년도 9월 20번>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31번>

31.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시행 B형>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 낸다.
-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 ③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
- ④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 ⑤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시행 A형>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 ②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B형 31번>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A형 37번>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에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2018학년도 9월 20번>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31번>

31. 밑줄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시행 B형>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 낸다.
-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 ③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
- ④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 ⑤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시행 A형>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 ②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믿기 힘들겠지만, 밑줄 친 선지가 모두  
정답입니다.**

물론 예외<sup>1)</sup>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유형으로 출제된 문항의 70~80%는 단지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주제, 주제의식, 중심소재, 중심대상)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답이 되었습니다.<sup>2)</sup> 특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에서 위와 같은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만큼 출제자들은,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제를 하다보면 출제할 내용이 주제 외에는 없는 경우도 많으니 더욱더 이런 경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없다면, 다른 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주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선지를 고르기만 해도 정답률은 7~80%입니다.)

특히, 요즘의 비문학, 독서 문항은 난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문제가 쉽게 풀릴까?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문학, 독서 강의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쉽게 풀립니다. 심지어 그런 문항들이 많습니다.

1) 예외인 문항. <2015학년도 9월 A형 31번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심정을 선명하게 제시 하고 있다.>, <2015학년도 6월 B형 31번 ⑤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016학년도 9월 B형 32번 ① [A]와 <보기>는 모두 젊음과 늙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  
2) 참고할 문항. <2014학년도 A형 수능 31번 3번 선지 화자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이형기 낙화>, <2014학년도 A형 9월 31번 1번 선지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기.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풀어봅시다.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 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저 물려 있었다. 명청하게 물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번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20.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꺾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인 **정서**와,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집중해 읽어라!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 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뜰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매를 저 물려 있었다. 멍청하게 물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주제 = 핵심소재 + 서술

정서 = (객관적으로 촉발된) 감정

첫 시작은 묘사로 시작합니다. ~가리고, ~누워, **젊은 여자**가. 즉 주어진 젊은 여자가 묘사의 대상이자 핵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촉발하는 1연은 그렇게 그 여자에 대해 묘사하는데, 그 묘사로 객관적으로 촉발되는 감정/정서는 무엇인가요? 아마 찾아오는 이도 없고, 나비 한 마리도 없으니, **외로움** 같습니다.

자 머리로 읽었으니 이제는 가슴으로 읽어봅시다. 여자에게서 나오 묘사의 대상이 바뀝니다. **나도** 아픔이 있습니다. 즉, **특정적으로 시적화자는 자신의 아픔을 여자의 아픔과 동일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 마찬가지로, **~내 건강도~** 라면서, **그 여자와, 나를 동일시하며, 둘 다 회복되기를** 바라며 정서는 집약되고 있습니다.

첫 연은 **늙은 나무**를 만나며 시작합니다. **묵중**하게 서 있군요.

두 번째 연에서도 **그들**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추위** 보입니다.

세 번째 연에서도 **그들**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외로워** 보입니다.

네 번째 연에서도 **그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무엇인가 **다릅니다.** 놀랍고,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습니다.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한 모습들이고, **뽑아낼 수 없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즉 내 마음속에 뿌리내렸고, **동일시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상호텍스트성에 따라서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작품을 출제합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 묘사로 시작한 뒤 동일시,** 하게 되는 것이 공통 주제이자 시상 전개방식입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는 **인물에 대한 묘사 중심**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고, 박목월의 시는 **반복/변주**되며 **나무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tip 변별력 확보 선지의 특징

<아! 다르고 어! 다르다>

2.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아! 와 어!는 다르다... 어는 오답이다.

- ① 아                    ② 아아                    ③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 ④ 아!                    ⑤ 어                    정답은?

(설마 틀린 학생 없죠? 정답은 5번입니다.)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평가원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쓰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여자 즉, **사람**에 대한 묘사를 했지, **사물**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주제를 정리하면, (가)시는 **1연에 여자를 묘사하고, 2연에 여자를 나와 동일시하며, 3연에서 둘 다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각 연에 집약된 정서/주제 였습니다.

(나)시의 1연은 **높은 나무가 묵중하고**, 두 번째 연은 **추워** 보이고, 세 번째 연에서는 **외로워** 보입니다. 네 번째 연에서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즉 내 마음속에 뿌리내렸고, **동일시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시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변주와 심화**가 정답입니다.

**역시 주제,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관련된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강조합니다.**

주제인 **정서**와,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집중해 읽어라!



2017학년도 6월 풀어봅시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랫도리 다박솔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엇 산(山) 안 보이어 내 마음 똥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었드린 산(山),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 엉서리에 었혔고, 살살이 떡갈나무 억새풀 우거진 테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즉 하매,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었드린 마루에, 확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박두진, 『향현(香峴)』 -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물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다)

㉢ 눈은 따뜻하다.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함박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 작은 산 너머 거의 눈에 파묻힌 초가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질은 온도를 체롭게 한다. 눈이,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눈은 조용하다.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요하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곡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호젓한 내용을 갖게 한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삼 의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 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 가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가로 변하지 않겠는가.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이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 박이문, 『눈』 -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시론'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35.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산이 '누겨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즉 하'라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볼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가)의 '핏내를 잊은 ~ 즐거이 뛰는 날'은 평화로운 세계를,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물의 결빙감을, ㉡은 불의 충죽감을 비유한다.
- ② ㉠은 비의 부정적 의미를,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 ④ ㉠은 물의 생동하는 힘을, ㉡은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형상화한다.
- ⑤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 ㉡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37.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②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자'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38.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은 ㉡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와 ㉢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

- ① 현재는 없다. 지나간 과거와 끝없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 ② 우리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길을 걷는 영원한 벗이다.
- ③ 시간은 모순이다. 험겨운 시간은 천천히,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 ④ 지식은 차갑다.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
- ⑤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

주제인 **정서**와,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집중해 읽어라!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었 산(山) 안 보이며 내 마음 동동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었드린 산(山),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무 다랫덩쿨 바위 엉서리에 었혔고, 살살이 떡갈나무 역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죽 하며,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었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갯내를 잇은 여우 이리 등축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꿩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박두진, 『향원(香峴)』 -

1연. 시상/정서가 촉발되는 연. 집중합니다.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산, 넘어 큰 산, 그 넘었 산, 안보여서 구름을 탑니다. 즉 뭔가 보고 싶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뭔가 보고 싶는데 안보이면 어떤가요? 바람이 실현 된 상황은 아니겠죠?

2연.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산의 속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 이군요. ,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산은 이것 저것 포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3연. 산이 침묵하고 있네요.

4연. 산이 침묵을 깨고 화염에 의한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5연. 시상이 집약되는 연. 집중합니다.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왜 기다리나요? 뭔가 바람이 있으니,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 기다리는 겁니다. 적대적 관계인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같이 뛰어 논답니다. 즉, 화합을 말하겠지요.

주제를 정리합니다. 핵심 소재 : 산, 서술 : 변화를 기다림.

**주제 : 산의 변화=화합을 기다림=바람.**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주제에 집중합니다.

바로 보이나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주제인 화자의 바람 표출. 답 3번이군요.**

오답을 잠시 쳐내보면,

-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바람=기다림, **미래**에 대한 서술입니다. 회고나 과거로 가는 선지는 오답입니다.

**tip 가나다 비교 문항 (feat. 상호 텍스트성)**

수능은 거의 항상 2작품 이상을 문학에 세트 구성을 하여 출제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텍스트적 감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함이었습니. 상호텍스트 성이라 함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를 연결해 구성합니다. 이 과정에 같이 주어져 읽게 되는, 혹은 이전에 읽었던 작품/텍스트와 관련지어 지식을 구성하고, 감상의 폭을 넓혀가게 됩니다. 이것을 상호텍스트적 읽기라 하고, 문학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문학교수학습 방법입니다.

따라서, 세트 문항은 공통점이 매우 명확한 문제들입니다. 바꿔말하면 한 작품만 제대로 감상해도 문제 접근에 큰 지장이 없어집니다. 위와 같이 바로 답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시론'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던.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물로 만나려 한다.

별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1~2행. 시상/정서가 촉발되는 문장. 집중합니다.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물이 되어 만나면 가문 어느 집에서도 좋아하지 않으랴?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 물이 되어 만나야 겠구나. = 바람 = 기대 = 기다림의 상황이 되겠군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물로 만나려 한다.

중간. 시상/정서가 전환되는 문장. 집중합니다.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그러나' 집중해야 하는 표지.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지금은 불로 만나니, 바람이 있을 상황은 아니고, 물 = 긍정, 불 = 부정적 대상으로 읽을 수 있겠군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마지막. 시상/정서가 집약되는 문장. 집중합니다.

머리로 읽기(사실적 독해) : 불 지난 뒤에 물로 만나자. 울 때는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가슴으로 읽기(감상적 독해) : 부정적인 불이 가고, 긍정적인 물이 되어서, 넓고 깨끗한 하늘에서 만나는 것을 바라고 있구나

주제를 정리합니다.

**주제 : 부정적인 불 지난 뒤, 긍정적 물이 되어, 넓고 깨끗한 하늘에서 만나자 => 긍정적 존재가 되어 화합하자.**

35.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는 산이 '누거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즉 하'다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불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③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군.

④ (가)의 '내 마음이' '동동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 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⑤ (가)의 '핏내를 잊은 ~ 즐거이 뛰는 날'은 평화로운 세계를,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가) **주제 : 산의 변화=화합을 기다림=바람.**

(나) **주제 : 긍정적 존재가 되어 화합하자.**

④ (가)의 '내 마음이' '동동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 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가) 4번선지 바꾸려 한다 ≠ **주제 : 산의 변화(화합)을 기다림(바람)**

(나) 4번선지 자연친화 ≠ **주제 : 긍정적 존재가 되어 화합하자.**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시론

다시 한 번 주제를 정리합니다.

주제 : 부정적인 불 지난 뒤, 긍정적 물이 되어, 넓고 깨끗한 하늘에서 만나자 => 긍정적 존재가 되어 화합하자.

불 : 부정

물 : 긍정.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물의 결빙감을, ㉡은 불의 충족감을 비유한다.
- ② ㉠은 비의 부정적 의미,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 ④ ㉠은 물의 생동하는 힘을, ㉡은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형상화한다.

=> 부정적 존재를 소멸시키고, 긍정적 존재가 되어 화합하자.

- ⑤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 ㉡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다)

③ 눈은 따뜻하다.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함박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 작은 산 너머 거의 눈에 파묻힌 초가집 골짜기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질은 온도를 체감케 한다. 눈이,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 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웃 동네와 교동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눈은 조용하다.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요하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 곡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뭇한 내용을 갖게 한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삼 의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 가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가로 변하지 않겠는가.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이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 박이문, 『눈』 -

주제를 정리합니다. 문학 작품의 주제는 마지막에 집약됩니다. (수필도 마찬가지)

주제 : 눈은 명상적이다. 혼자있게 되면, 고요하며, 거룩하고, 순수한 사색의 시간을 갖게 해준다. => 긍정적이다.

37.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②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답이 보이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항.

마지막 문항은 작품과는 크게 상관없는 표현하기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세트 구성상 간략한 해설을 덧붙이면, 선경 후경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면 묘사와, 그에 따른 감각/정서 표출이 있는 선지는 5번 밖에 없습니다.

㉠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 =>선경

㉡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 =>후경

38.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은 ㉡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 ㉢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

- ① 현재는 없다. 지나간 과거와 끝없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 ② 우리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길을 걷는 영원한 벗이다.
- ③ 시간은 모순이다. 험거운 시간은 천천히,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 ④ 지식은 차갑다.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
- ⑤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

지금까지의 수업을 정리합니다.

주제인 **정서**와,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집중해 읽어라!

꼭 기억바랍니다.

추가로...

**tip** 변별력 확보 선지의 특징

〈아! 다르고 어! 다르다〉

**tip** 변별력 확보 선지의 특징

〈기준이 명확하다〉

**tip** 가나다 비교 문항 (feat. 상호 텍스트성)

이 내용도 기억해 활용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2014~2016학년도 기출에 적용하고 해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